

“사흘간 폭설, 강수량 8mm 불과”...해갈 역부족

‘물기 없는’ 눈, 20cm 안팎 내려도 가뭄해소 효과 미미
 식수원 저수율 연일 감소... “집중호우 아니면 장기화”

광주·전남에 사흘간 최고 20cm 안팎 많은 눈이 내렸으나 가뭄 해소까지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후 최심 적설량은 무안 해제 20.4cm, 신안 압해 19.3cm, 광주 남구 18.8cm, 함평 월야 18.8cm, 영광 18.7cm, 광주 광산 18.0cm, 무안 운남 16.6cm, 장성 15.1cm, 화순 16.3cm 등으로 집계됐다.

최심 적설량은 눈이 가장 많이 온 순간 집계된 적설량을 뜻한다.

광주의 경우 지난 18일 오전 9시 남구 일대에서 측정한 18.8cm가 가장 많은 적설량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물기가 없는 마른 눈인 이른바 ‘건설’ (가루눈)이 내린 탓에 가뭄 해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눈이 내릴 당시의 기상 상황과 눈송이 머금은 습도 등을 분석해 ‘건설’과 ‘습설’(합박눈)로 분류한다.

영하권 온도에서 습기를 머금지 않은 상태로 내리는 ‘건설’은 적설

량의 30분의 1 정도를 강수량으로 환산한다. 물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은 강수량 치환 기준이 적설량 대비 10분의 1정도다.

지난 사흘간 광주·전남에 내린 눈을 ‘건설’ 환산 기준에 따라 강수량으로 바꾸면 강수량은 6~8mm에 불과하다.

광주시 식수원인 동복댐이 있는 화순 지역의 경우 사흘간 내린 눈이 비로 따지면 4mm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잇단 폭설에도 상수원 저수율은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

동복댐 저수율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27.32%다. 저수량은 전체 9500여t 중 2512만4000t에 불과하다. 폭설 전날인 지난 16일 2550만t부터 매일 10~14만t씩 감소하고 있다.

전남도민의 빙글이 순천 주암댐도 이날 오전 기준 저수율이 30.1%(2억 1000t)에 그쳤다. 특히 순천은 지난 사흘간 적설량이 1cm 미만에 불과해 강수량 계산이 무의미하다. 당국은 집중 호우가 아닌 이상 당분간 해갈



광주시·자치구 골목길 눈 치우기 나서

광주시와 자치구 전 직원이 19일 새벽 대설주의보가 다시 발효됨에 따라 이면도로와 골목길 눈 치우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은 힘을 벗어라고 내다봤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통상 비가 100mm 정도 내릴 때 저수

율이 10%가 차오른다고 계산한다. 지난해 11월 말 동복댐 저수율은 70% 안팎을 유지했다”며 “약 400mm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가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걱정했다.

/조일상 기자

전남,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지원...전국 최다
 ha당 평균 66만원 지급

전남도가 쌀 산업 유지와 벼 재배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올해도 경영안정금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전남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은 농가별 2ha 한도로 직불금 형태로 지급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가입 농지는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거나, 0.1ha 미만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지급 대상은 12만 6000여명에 평균 지급 단가는 ha당 66만원이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남도가 쌀 시장개방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 유지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지속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직불금과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자금이다.

2001년 18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투입한 총사업비는 9690억원에 달한다.

이는 벼 재배 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는 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가에 지원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농자재·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광주 광산구 마을버스 노선 폐지 위기 해결을”

경영난 등으로 노선 휴업·폐지 위기까지 맞은 광주의 한 마을버스 운송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준공영제 도입 등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산버스는 19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 운수 성격을 띄고 있는 마을버스를 향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측은 “평지와 봉정 등을 오가는 720-1번 노선 운전기사가 최근 뇌종양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해당 노선이 일시 휴업 중이다. 사실상 노선 폐지 위기 상황”이라며 “입원진 등이 대리운전에 나서도 역

부족인 상황에서 광산구는 마을버스 행정 업무에 사실상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산구는 올해 10월 관계자 면담 자리에서 ‘마을버스 재정 지원 업무는 광주시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 조례 제3조에는 지원 대상을 마을버스 회사로 분명하게 하고 있다. 지원 범위 역시 ‘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 등 구체적이다”고 비판했다.

또 “연료인 천연가스 비용이 폭등해 지난해 12월 한 달 기준 3600만 원 선에서 올해 11월에는 51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올라 경영난이 가

중되고 있다”며 “기사 월급도 경영난에 따라 최저시급이 적용된 월 200만 원 남짓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측은 “마을버스는 수요자 중심 교통 환경으로 바뀐 오늘날 골목길·농촌길을 모세혈관처럼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 수단”이라며 “마을버스 운영 서비스는 시장·자본 논리가 아니라 편의 비용에서 분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기사 임금 실질적 보장 ▲준공영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에 광산구는 시와 협의해 사측과 이용자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방

“기사 임금 현실화·준공영제 등 도입 시급”

광산구 “사측·주민 지원책 구상 마련할 것”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 광주시가 마을버스 지원금 산정을 위해 벌인 ‘2021년~2022년 마을버스 운송업체 회계감사·표준원가산정 용역’ 결과 광산버스는 지난해 광산구가 지급한 ‘2020년도 손실액 70% 운영보조금’ 1억 4000여 만 원이 수입으로 집계돼 한때 흑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시는 광산버스에 이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마을버스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시와 논의를 꾸준히 이어나갈 예

정”이라며 “이밖에 노선 휴업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평지·봉정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월 2회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또 평등 농협과 논의해 조합원 전용 버스를 휴업 기간 동안 해당 구간에 투입시켜 추가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통기 기자

전남 지역화폐 통합앱 나온다 2면

野3당 ‘이태원 참사’ 국조 의결 3면

새해 휘발유 리터당 100원 인상 4면

알림

본보 지역 주재기자 모집

▶모집분야

여수시, 고흥군

호남매일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림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림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측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

